"집 안에서 산도 오르고, 고양이별도 가고"

현실 경계 허문 '가상 공간' 열풍

한라산 등반과 내 작품 전시까지
온라인 사찰서 합장·108배 체험
반려동물 추모·이용자 소통도
시간·장소 넘어 위로·교류 확장





온라인 가상 사찰 '산사(山寺)'에서 동자승 캐릭터들이 법당 앞에 모여 있는 모습(왼쪽)과 반려동물의 사진, 편지 등이 놓인 온라인 추모 공간 '꼬리별'의 추모 사물함. /윤찬웅 기자

"집에서 산도 오르고, 그림도 전시하고, 그리운 반려동물도 추억해요."

현실에서나 가능했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온라인 가상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 체험 공간이 소개되면서 새로운 온라인 문화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공간이 눈길을 끈다.

10일 가상 사찰 '산사(山寺)'에 접속하자 전통 사찰을 본뜬 법당과 승복을 입은 동자승 캐릭터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용자들은 캐릭터를 움직여 경내를 돌아다니거나 불상을 향해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불교 신자인 이태양(20대) 씨는 "직접 사찰을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합장하고 108배를 올리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상공간은 종교 활동뿐 아니라 취미와 문화생활 등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 등산 사이트에서는 캐릭터를 움직여 설악산과 지리산, 한라산 등을 등반할 수 있다.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른 이용자들과 마주치기도 한다.

온라인 미술관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다. 가상 미술관 '백야 미술관'에서는 캐릭터를 움직여 전시장을 둘러보며 다른 이용자들이 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면 다른 이용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후기를 남길 수도 있다.

온라인 야구장에서는 실제 경기 시간에 맞춰 함께 응원하고, 3D 혼술바에서는 포장마차나 캠핑장 등을 배경으로 다른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가상공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취미와 문화생활, 타인과의 교류 등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마음을 달래는 방식은 종교 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온라인 추모관 '꼬리별'도 등장했다.

이날 접속한 꼬리별에는 반려동물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추모 사물함이 줄지어 있었다. 한 사물함에는 "보고 싶다. 좋아하는 맘마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있어"라는 편지가 걸려 있었고 주변에는 꽃다발과 인형 등이 놓여 있었다.

이용자들은 추모 사물함을 둘러보며 헌화하거나 편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그리움을 전했다.

최근 꼬리별로 반려동물을 추모한 이정민(25·여) 씨는 "이렇게라도 추모하며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며 "언제 어디서든 그리울 때 찾아와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온라인 가상공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위로받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윤재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층에게 온라인은 일상의 일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특히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인 만큼 온라인 추모 공간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슬픔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온라인에만 의존하기보다 우울이나 불안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찬웅·이연상 기자

남구 반려동물정책팀 새 출발…복지정책 변화 예고

도시농업과 신설·전담업무 정비
유기동물 지원·입양 활성화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늘어나는 동물복지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정책 전담팀을 신설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재정국 산하 도시농업과를 새롭게 설치하고 농업·축산·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 중 반려동물정책팀은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 소음과 펫티켓 미준수, 길고양이 보호·관리 등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과 동물학대 사건 증가로 자치구의 동물보호 업무가 늘어난 점도 전담조직 신설의 배경이다.

또한 반려동물정책팀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과 도심형 유기묘 입양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향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펫페스티벌 개최 등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운영 남구 경제재정국장은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민생경제과는 경제활력팀·도시농업팀·동물축산팀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농업·동물 관련 업무를 함께 진행했다. 하반기 조직개편 이후부터는 각각 전담업무를 구분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제활력팀·소상공인팀·골목상권팀으로 재편됐다. 소상공인·골목상권팀은 경기침체·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서형우 기자

조선대, 내년 학부 등록금 동결

글로컬 3대 특성화 분야 장학지원 확대

조선대학교가 2027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제7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학부 등록금을 동결키로 심의·의결했다.

2027학년도 신설 모집 단위 등록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 책정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등록금 동결과 함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주요 장학제도는 ▲글로컬 장학금(1인당 최대 150만원) ▲글로컬 취업역량인증제 장학금(50만-100만원) ▲웰에이징 대학원 진학 장학금(1인당 최대 500만원) 등이다.

이를 위해 조선대는 2027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3년간 약 70억원의 장학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조선대는 학부 4학년부터 우수 연구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우수 인재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과 함께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장학 지원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7:03 해짐 17:30 달뜸 08:55 달짐 18:27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3/18	장성	맑음	2/18
목포	맑음	5/16	보성	맑음	2/17
여수	맑음	4/16	함평	맑음	2/17
나주	맑음	1/17	순천	맑음	5/18
완도	맑음	6/18	영광	맑음	3/17
구례	맑음	3/17	진도	맑음	3/16
강진	맑음	3/17	흑산도	맑음	11/16
해남	맑음	2/17	고흥	맑음	3/18
광양	맑음	3/18	담양	맑음	2/18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0.5	0.5-0.5
	먼바다(북)	0.5-1.5	0.5-1.5
	먼바다(남)	0.5-1.5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0.5	0.5-0.5
	먼바다(동)	0.5-1.5	0.5-1.5
	먼바다(서)	0.5-2.0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47	08:05	여수	10:07	03:23	녹동	03:50	09:56
	15:35	20:46		21:56	16:10		16:45	23:39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70 — 감기 조심해요
세 차 70 — 세차하기 좋은날
빨 래 70 — 실외건조 좋아요
운 동 50 —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12일(목)	13일(금)	14일(토)
(4/17)	(7/19)	(10/16)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 비
15일(일)	16일(월)	17일(화)
(13/18)	(10/17)	(9/15)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많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장이 서는 날⊙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나주시 광고문의 : 062)650-2099